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78호 1판 (음력 10월 7일)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농민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거리 투쟁

/뉴스초점/ 쌀값, 비싼가요?

정부·여당 쌀 80kg 1가마당 목표가격 19만6000원 책정

생산비는 늘고 소비 갈수록 줄어 24만원 보장하라 요구

"밥 한 공기 230원이 비싸다고들 해싸니. 나 참 환장 허것어."

13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도로. 농민 300여명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나왔다. 이들은 '밥 한 공기 300원 쟁취'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도정미 80㎏)에 대한 항의다. 이 가격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45원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임금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농가소득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밥상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언론은 쌀값이 폭등했다는 표현했다. 정말 그럴까.

◇자판기 커피 한 잔 보다 못한 밥 한 공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일 기준 쌀 한 가마(80㎏) 산지 가격은 19만3696원, 밥 한 공기(100g)로 따지면 242원이다. 소주 1잔 500원, 자판기 커피 1잔 300원보다 낮다. 피자 큰 것 한 판(2만~3만5000원)이나 치킨 한 마리(1만5000~2만 원) 먹을 돈이면 쌀 10㎏들이 한 포대(2만4212원)를 살 수 있다. 쌀 10㎏이면 쌀밥 100공기다.

임연화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의장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책정해야 비로소 밥 한 공기가 300원이 된다. 그래 봐야 커피값 10분의 1에 불과하다. 쌀값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52%에 그친다는데 왜들 호들갑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밥 한 공기에 200원이 안 되는 낮은 쌀값으로 고통을 당했다. 2013년 219원에서 2016년 162원으로 폭락했다가 올해 234원으로 겨우 회복하는 중이다.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으로 더는 농민을 울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생산비는 급증, 쌀값은?=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쌀 소비량은 줄고, 생산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3년 67.2㎏에서 매년 줄어 2017년 61.8㎏까지 내려갔다. 1998년(99.2㎏)과 비교하면 소비량이 3분의 1이상 (37.4㎏, 37.7%) 급감했다.

소비량이 줄자 생산량도 줄여야 했다. 쌀 생산량은 2013년 423만11t에서 2015년 432만6915t까지 늘었다가 2016년 419만6691t, 2017년 397만2468t으로 줄고 있다. 정부는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통해 쌀 생산량을 더 줄이고자 한다.

반면, 농가소득(총수입-경영비)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하는 탓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 1㏊(1만㎡)당 소득은 2013년 643만3600원에서 2016년 429만546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41만4500원으로 증가했지만 10년 전인 2008년 623만7420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82만2920원 감소했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 원이다. 볍씨대·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해서다. 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0㎏ 쌀 1가마당 24만 원이기 때문이다.

고흥군 포두면의 농부 김근호(44)씨는 "쌀 가격이 오르고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수 십년 동안 조금씩 오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던 쌀 값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만저도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면서 "쌀 가격 상승이 중간 상인들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농민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촌동 광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벼를 수매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면앙정 송순 조선시대 래퍼였다 ▶18면
막 내린 2018 프로야구
-SK 역대급 업셋·체면 구긴 KIA ▶20면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송순의 면앙정

막판 몰린 '광주형 일자리'

접점 못찾은 1~2개 사안 지역노동계 수용 여부 관건

추진단, 오늘 오전 회의 결과 발표하고 현대차 방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 여부가 13일 밤늦게 시작되는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난 1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과의 협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지역노동계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시는 14일 오전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현대차를 방문해 15일까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의 극심한 반대 속에 동력을 유지한 채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 미래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무산된다면 정계,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고, 문재인 정부 및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13일 "아직까지 접점을 못찾고 있는 1~2개 사안은 광주시에 맡겨줄 것을 지역 노동계에 간곡하게 당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등은 사실상 광주시·현대차가 투자해 2019년 설립되는 합작법인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최대 주주인 광주시를 믿고 맡겨달라는 주문이다.

지난 10월 25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탈한 노동계가 원탁회의에 이어 투자유치추진단에 전격 합류하면서 성사 가능성을 높였으나, 지역노동계가 여전히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원, 5년간 단체협약 유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대차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시가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계속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양측을 설득했지만,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14일 오전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뒤 현대차를 방문해 1박2일간 최종 협상 타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지역노동계가 남아 있는 1~2개의 사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광주시를 믿고 맡겨준다면 현대차와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만들어내보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 '수능 추위' 없다

광주·전남 미세먼지 나쁨

관공서 등 출근 1시간 늦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5일 광주·전남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 포근할 것"이라고 13일 예보했다. 수능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전망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수험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능일 관공서와 일부 사업장은 오전 출근 시간이 기존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코레일도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긴급 상황 외에는 시험장 주변 운행 열차의 기적 소리를 통제하고 열차도 서행시켜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4일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아 들고 시험장(학교)을 미리 살피는 예비소집에 참여해 위치와 이동 시간을 가늠해야 한다.

/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Shinsung Motors Safety First Campaign
신성자동차 고객 감사 안전 캠페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신성자동차만의 안전 이벤트!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세요!

신성자동차 세이프티 1st 캠페인

· 일시 : 2018.10.15~2018.11.30
· 대상 :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전 지점

안전 주요 항목 무상 점검
엔진오일 업그레이드
Collection Event
세이프티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